

‘나주목 관아 동헌’ 복원 본격화…관광 거점 도시 조성

10월까지 핵심 기초자료 확보 임시주차장 철거 고고학적 조사 2019년 부터 3회 조사 유구 확인 원도심 중심 역사적 가치 확산

전라남도 나주시가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중심지였던 ‘나주목 관아 동헌’ 복원을 위한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밀 발굴조사, 지장물 철거 추진 등을 통해 역사문화관광 거점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금계동 31-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지장물

철거와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해 ‘나주목 관아 동헌’ 복원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나주목 관아의 핵심 건물이자 중심 행정공간이었던 동헌의 위치와 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사전 정비로, 구 금남동 복합청사와 임시주차장 등을 철거하고 고고학적 조사를 병행한다.

해당 부지는 과거 금성읍지와 속수나주지 등의 고문헌을 통해 동헌 위치로 추정돼 왔으나, 근현대기 시장 및 건축물 조성으로 지형이 훼손돼 정확한 위치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해당 지역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해 건물지, 기단, 연못, 보도, 담장 등 다양한 유구(遺構)를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의 한계를 넘어 동헌 복원의 결정적 근거를 확보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나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비는 2012년 금계시장 철거 이후 추진 중인 ‘나주목 관아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금성관(2002), 서익헌(2005), 동익헌(2007), 연못(2018), 향청(2023) 등이 순차적으로 복원됐다.

이 중 객사 역할을 했던 금성관은 조선

시대 중앙 관리나 외국 사신이 머물던 시설로 현재 해체보수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헌은 주요 시설과 함께 나주목 관아의 핵심 공간으로 복원 시 역사적 복합구조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

나주시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유적 정비가 아닌 나주의 찬란한 읍지 역사와 정체성을 되살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발굴과 복원 과정에 있어 인근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은 나주 고유의 역사문화에 대한 공동체적 자긍심과 참여 의식을 확인하는 뜻깊은 사례로 평가된다.

시는 향후 발굴 성과를 대국민 홍보와 연계해 나주목 관아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조선시대 관아, 향교, 읍성 등 문화유산이 집적된 원도심을 중심으로 통합적 관광자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확보한 고고학적 자료는 나주목 관아 복원사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적 보존과 도시 정비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주를 역사문화 관광거점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나주시민의 상’ 영예의 수상자 찾는다

지역개발 등 5개 부문 7월31일까지 후보 접수

전라남도 나주시는 오는 7월31일까지 ‘2025년 나주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나주시민의 상’은 지역개발, 사회복지, 충효도의, 산업경제, 교육문화 등 5개 부문에서 헌신과 봉사를 실천해 온 시민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해 그 공적을 기리는 시 최고 권위의 상이다.

대상자는 나주시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소를 두고 해당 분야 공적이 뚜렷한 시민이다.

후보자는 각 부문별 공적과 관계된 기관장, 나주시청 실·단·과·소장 및 읍·면·동장을 통해 추천할 수 있다.

오는 7월31일까지 나주시청 총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추천서 및 관련 서류는 나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수상자는 시의원 3명을 비롯해 부문별 학식과 조예가 깊은 시민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1명씩 선정된다. 오는 10월30일 열리는 제31회 나주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1996년부터 시작된 ‘나주시민의 상’은 지금까지 총 40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인물들의 공적을 영구히 기록·보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산업경제(김석중)와 교육문화(안세영) 2개 분야에서 각각 1명씩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나주=김용의 기자

‘영산강정원 조성 협력’ 업무협약 체결

JB가든센터·오앤오파하우스 조경 연출 콘텐츠 개발 등

전라남도 나주시가 새로운 영산강 시대 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나주시-JB가든센터-오앤오파하우스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병대 나주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와 JB가든센터 김정범 대표, 오앤오파하우스 김근수 대표가 함께했다.

이번 협약은 영산강정원을 국가정원으로

로 지정하기 위한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정원의 대표 공간 조성하고 조경 연출,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이 함께 협력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영산강정원 조성하고 활성화할 목표로 정원 관리와 홍보, 행사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나무를 심는 것이 상으로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원 분야 최고의 전문성과 열정을 겸비한 대표님들의 역량을 영산강정원에 아낌없이 써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나주소방,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등

나주소방서가 최근 영산강둔치 체육공원 일원에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비응급 상황에서 구급차를 남용하는 사례를 줄이고 응급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주소방서와 나주보건소에서 공동 실시했다.

캠페인에서 나주소방서와 나주보건소는 “구급차가 단순 통원이나 생활편의 수

단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중심의 이용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실천을 당부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자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119 구급차 출동시 양보 운전의 중요성, 구급대원 병원 선정 존중 등을 강조하며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나주소방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나주=김용의 기자



제11회 나주시장기 광주전남 생활체육 족구대회가 지난달 31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렸다. 이날 전국 동호인 350여명이 참여해 실력을 겨뤘다.

나주시 제공

제11회 나주시장기 족구대회 성황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간 스포츠 교류 촉진에 위해 전국 단위 생활체육 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스포츠 대회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제11회 나주시장기 광주전남 생활체육 족구대회’를 지난

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틀간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보조축구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동호인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족구 동호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나주시 족구협회가 주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 족구 활성화와 지역 간 스포츠 교류를 촉진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올해 11회를 맞이했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시는 족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의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500만 관광객도시 나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나주시, 25일까지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 운영

조직문화 개선 목표

전라남도 나주시가 직접 소통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 및 청렴도 향상을 모색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공직 내 청렴 문화 정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를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간담회는 감사실장과 직원들이 전 부서를 직접 방문해 청렴도 향상 방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2025년 청렴도 평가 기준 및 유의사항 안내, 측정 일정과 방향 공유, 직원 역할 안내 및 동참 요청 등 실질적인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 중인 소통 중심 청렴 시책인 ‘청렴 T.O.P.’ 및 ‘청렴 토크쇼’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했다. 해당 시책은 청렴을 일방적 교육이 아닌 양방향 소통



나주시가 오는 2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간담회를 시행한다.

나주시 제공

과 문화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간담회에 참여한 직원들은 결원 부서 인력 보강,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 상습 폭언 민원 대응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지난해 추진된 청렴 시책 성과로 중요 직무급 도입, 구내식당 메뉴 개선,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 등의 실제 변화에 대해 공유하며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갔다.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는 오는 25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직원 제안을 적극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나주=김용의 기자